

# 시즌 첫 승 도전 김세영 '부활샷' 쏜다

'3년 전 우승'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출격



역대 우승자 김인경·유소연도 도전장  
컵초·핸더슨·하타오카 나사와 샷대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김세영(29)이 시즌 첫 승과 함께 3년 만의 마라톤 클래식 정상 탈환을 노린다.

김세영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LPGA 마라톤 클래식에 출전한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아직 우승이 없는 김세영은 3년 전 이 대회서 무려 22연패를 기록, 2위 렉시 톨프스(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0년 10월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2년 가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 김세영으로선 이번 대회가 부진

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세영과 함께 지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28)와 4월 롯데 챔피언십 우승자 김효주 등 총 17명의 한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2017년 이 대회서 우승한 김인경(34)과 2012년 우승자 유소연(32), 2010년 우승자 최나연(35)도 대회 두 번째 우승을 위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의 가장 강력한 우승 라이벌은 시즌 3승을 기록한 제니퍼 컵초(미국)다.

컵초는 올해 4월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6월 마이어 클래식에서 이어 더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까지 석권하며 이번 시즌 최초로 3승에 오른 선수가 됐다.

또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브룩 핸더슨(캐나다)도 출전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대회 우승자인 하타오카 나사(일본)도 이번 대회서 시즌 두 번째 우승과 대회 2연패를 향한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 순천시청 추문수, 코트 '파란'

2022 ISTF 월드투어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남자 단식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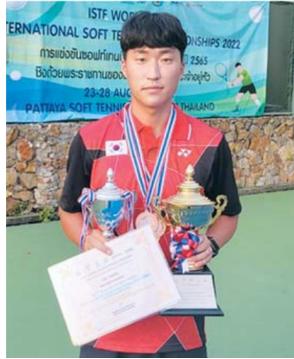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 추문수(29·순천시청)가 국제 대회에서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는 30일 "지난 23-28일 태국 파타야 테니스인터클럽에서 개최된 2022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ISTF) 월드투어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추문수가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추문수(순천시청)는 8강에서 남자복식 최강자 이요한(음성군청)을 4대1, 4강에서 국가대표 윤형욱(순창군청)을 4대1로 제압하며 코트에 파란을 일으켰다.

결승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단식 2연패를 달성한 국내 1인자 김진웅(수원시청)을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며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추문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게 꿈인 것만 같다"며 "이 기세를 이어 내년에는 상비군이 아닌 당당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항저우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기자



2022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ISTF) 월드투어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추문수. <전남체육회 제공>

김백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은 "무덤고 습한 날씨를 투혼으로 극복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기자

## 30일 KIA-한화戦 우천 취소

비·태풍에 줄어드는 예비일  
월요일 경기·DH 편성 검토 중



가을을 재촉하는 비에 태풍 북상 소식마저 겹치자 프로야구 잔여 경기 일정을 편성하는 KBO 사무

국이 바빠졌다.

30일 우천으로 LG-NC(잠실), 두산-kt(수원), KIA-한화(대전), SSG-삼성(대구)경기가 취소되며 현재 취소되거나 노게일이 선언된 경기는 모두 47경기다.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취소되는 경기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O 사무국은 다음달 추석 연휴 전에 잔여 경기 재편성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편성 원칙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취소된 경기 수가 가장 많은 구단은 NC가 12경기를 못했다. LG와 두산 취소 경기 수가 11경기로 뒤를 잇는다.

KBO 사무국이 올해 한국시리즈를 최종 7차전까지 치른다고 가정해 시즌 종료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날짜는 11월5일이다.

MLB 스타들과 KBO 올스타들이 기량을 겨루는 'MLB 월드투어 : 코리아 시리즈 2022' 친선전 4경기가 11월11-12일(사직구장), 11월14-15일(고척스카이돔) 열릴 예정이라 늦어도 11월5일에는 올해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나야 한다.

KBO 사무국은 우선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DH) 편성없이 주중 '예비일'을 지정해 잔여 경기 일정을 편성 중이다. 그러나 NC의 취소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예비일이 줄기에 월요일 경기와 DH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규시즌 KBO 운영그룹장은 "이번 주까지 날씨 상황을 지켜본 뒤 월요일 경기와 DH 편성 등 정규리그 시행 세칙 등을 보완해 10개 구단에 이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9월5일...3년 만에 대면 진행

# 목포여상 어르형, 코리안 드림 이루나

194.5cm 장신, 부동의 미들 블로커 주목  
몽골 출신 귀화 절차 중 지명에는 무관  
우선 지명권 보유 AI페퍼스 낙점 유력

프로배구 2022-2023시즌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9월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29일 발표한 드래프트 참가자 규모는 16개 학교 졸업 예정자 49명이다.

이 중 2022 아시아배구연맹(AVC)컵 국가대표로 선발된 황지민(중앙여고·아웃사이드 히터), 고서현(제천여고·아웃사이드 히터 겸 아포스트 스파이커), 임혜림(세화여고·미들 블로커)과 박은지(일신여상·세터), 김보민(한봉고·아웃사이드 히터 겸 미들 블로커) 등이 상위 순번에 지명될 선수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현재 귀화를 추진 중인 몽골 출신 체원랩 당 어르형(목포여상·미들 블로커)의 지명에 비대한 시선이 쏠린다.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어르형은 2019년 한국에 와 2021년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다.

현재 KGC인삼공사의 주전 세터인 염혜선(31)의 부모가 어르형을 입양해 '염어르형'으로 불린다.

키 194.5cm의 어르형이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면 앞으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에서 부동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KOVO 규약에 따르면, 귀화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귀화 신청 후 귀화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어르형은 후자의 사례다.

배구계에 따르면, 어르형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돼 귀화에 필요한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만 본다고 한다.

어르형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입단하더라도 귀화 승인이 완료된 뒤에야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다.

2022-2023시즌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우선 지명권(1명)을 지닌 페퍼저축은행이 1라운드 1순위를 지명한다.



194.5cm 장신으로 블로킹 높이가 좋고 속공 등 경기 감각이 뛰어나 다음달 5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낙점이 유력한 목포여상 미들 블로커 체원랩 당 어르형. <목포여상 제공>

현재로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어르형의 이름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후 추첨 확률 1순위를 받은 페퍼저축은행을 포함해 지난 시즌 최준승이 역순인 페퍼저축은행 35%, 흥국생명 30%, IBK기업은행 2%, KGC인삼공사 8%, GS칼텍스 4%, 한국도로공사 2%, 현대건설 1%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 선수를 뽑는다.

배구연맹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번 드래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철도공사 장한빛 '첫 금'

전국실업유도선수권 -63kg급

광주도시철도공사 장한빛이 2022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입단 2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신고했다.

장한빛은 지난 29일 강원도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63kg급 결승에서 박예린(충북도청)을 맞대결로 승리하며 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한빛은 16강전서 윤주희(인천시청)를 업어치기 절반승, 8강전서 김혜미(순천시청)에게 기권승, 준결승서 김성은(동해시청)을 잇따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과 용인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한 그는 늘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올해 역시 춘계실업연맹대회 2위,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다. /박희중기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씁쓸한 도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는 저력을 선보였다. 신대철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감독은 "(신)유나에 이어 (장)한빛이가 입단 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어 기쁘다. 이번 대회 금메달 자신감으로 전국체전에서 다시 한번 최고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근성의 야수' 전준호·이순철 정근우·박진만

# KBO리그 40주년 레전드 선정

'대도' 전준호(53) 롯데 자이언츠 코치, 이순철(61) SBS 해설위원, '악마의 2루수' 정근우(40), '명품 유격수' 박진만(46) 삼성 라이온즈 감독대행이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지난 29일 "목록히 자기 몫 이상을 해낸 근성의 야수 4명이 40인 명단에 뽑혔다"고 소개했다.

전준호 코치는 전문가 점수 42.56점, 팬 점수 3.61점, 총점 46.17점으로 전체 34위를 차지했고, 이순철(43.53점) 해설위원은 37위, 정근우(42.83점)는 38위, 박진만 감독대행(42.31점·이상 총점)은 39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준호 코치는 프로야구 19시즌 동안 통산 도루 549개를 기록해 이 부문 1위에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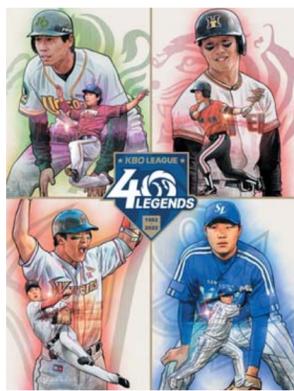
그는 1991시즌부터 2008시즌까지 18시즌 연속 10도루 대기록을 세웠고, 1993년엔 단일 시즌 최다 도루 2위 기록인 75개를 성공했다.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던 2004시즌엔 도루 53개로 9시즌 만에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령 도루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순철 위원은 선수 시절 타격, 수비, 도루 능력을 두루 겸비한 호타준족이었다.

KBO리그 입단 첫해인 1985시즌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와 신인상을 받았고, 외야수로 보직을 변경한 뒤에도 골든글러브를 4차례나 거머쥐었다.

이 위원은 도루 부문 타이틀을 세 차례 차지했으며 통산 도루 공동 7위(371개)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에 선정된 전준호, 이순철, 박진만, 정근우(시계방향). <KBO 제공>

또한 1992시즌 KBO리그 역대 6번째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다.

정근우는 작은 체구의 불리함을 근성과 노력으로 극복한 선수였다. 그는 항상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2006시즌부터 2016시즌까지 11시즌 연속 20도루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해당 부문 최다 기록이다.

박진만 감독대행은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명품 유격수였다.

박 대행은 현대 유니콘스에 4차례 우승을 안겼고, 삼성에서도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편, 이순철 위원은 다음 달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 wiz와 KIA 타이거즈전에서 한다. /연합뉴스

## 오는 11월13일 '제4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열린다

# 전국 건각들, 목표를 달구다

목포시는 30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평화 교류 협력·인권 신장,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민주 정신 계승을 위한 '제4회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13일 목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관계자 회의를 열어 대회 개최일을 확정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지한 후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회 참가비는 5km 1만5천원, 10km·하프코스 3만원이다.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육상연맹, 전남

도육상연맹 등으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3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점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이며 5km, 10km,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이 펼쳐진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안내책자, 배번, 집이 주소로 택배 발송되며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 등이 지급된다. 대회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훌륭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